

68혁명운동과 노동운동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의 교훈과 노동운동의 전망

정병기*

68혁명운동이 주목한 것은 사회주의뿐 아니라, 기부장적 권위주의, 인간과 문명의 권위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강대국의 권위주의 및 진화론적 권위주의라는 제반 권위주의적 현상을 비판하는 탈물질주의적 사고였다. 그러나 68혁명운동 당시나 가까운 시기에 사회주의와 탈물질주의가 바로 결합하지는 못했다. 기성 노조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토대민주주의 주장에 마지못해 공감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도 관료적 권위주의에 머물러 탈물질주의적 성찰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는 시기는 물질주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 시대가 되었다. 68혁명운동의 노동운동사적 의미는 계급모순을 타파하는 동시에 반권위주의적·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적 좌파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주요 용어: 1968, 탈물질주의, 반권위주의, 일상성의 민주주의, 노동운동.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byungkeec@snu.ac.kr.

1. 머리말

68혁명운동¹⁾도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 약 반세기를 바라보는 동안 68혁명운동의 혁명성과 성패 및 이후 여파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며, 불혹의 세월에도 여전히 그 논쟁은 식지 않고 있다. 68혁명운동이 새롭게 제기한 해방적 삶의 스타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해방적 삶의 스타일은 학생운동과 문화운동에 국한돼 논의되어온 성격이 다분하다. 물론 당시의 학생운동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주체성을 거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발적 과업운동이 팽창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자계급과 그 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두고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논의가 분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68혁명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는 분석적으로 되짚어볼 가치가 충분하다.²⁾

더욱이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쳐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팽창함으로써 68혁명운동이 이룩한 변화도 다시 퇴색하고 있다. 사회복지국가인 선진국에서조차 사회안전망이 축소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물질적 소비문화의 팽창이 다시금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8혁명운동이 노동운동과 맺은 관계는 더욱 새롭게 조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록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은 물질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새로운 사회운동이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양상도 선진국들과 유사해지고 있어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대두된다. 시간적 역사는

-
- 1)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기준으로 혁명의 개념정의에 관해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이 글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다만 그 성패와 관계없이 전반적 사회변혁을 목표로 했으며 실제로 사고의 중대한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1968년을 전후한 사회운동을 ‘혁명적 운동’이라고 본다.
 - 2) 프랑스에서는 예외적으로 68혁명운동 발생 당시에 이미 노학연대가 이루어져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되어왔다[Seidman(2004)과 Singer(2002)가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68혁명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는 영어·독어·불어권에서도 예외적으로 Gehrke & Horn(2006)이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뿐, 대부분 68혁명운동을 다루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압축적으로 발전할 뿐 단계를 생략하지 않지만 공간적 역사는 지리적 한계를 넘나들며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68혁명운동이라는 서구의 역사³⁾가 이미 한국에도 녹아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 글은 68혁명운동을 전통적 사회운동인 노동운동 및 사회주의운동 강화와 새롭게 촉발된 신사회운동 등장의 동시적 계기라는 입장에서 고찰하고, 그 의미와 교훈을 도출하여 68혁명운동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과 노동운동의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먼저 68혁명운동의 주요 비판 대상과 요구 사항을 살펴본 다음 당시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교훈을 짚어내고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는 순서를 따른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68혁명운동 시기와 그 직후에 가장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하게 전개된 대표적 사례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국한하기로 한다.⁴⁾ 프랑스에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밀접하고 광범하게 연대하면서 전개되었던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두 운동이 대부분 독자적으로 일어나 결과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사례에 대한 고찰은 68혁명운동과 노동운동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3) 멕시코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일어난 당시의 사회운동들도 68혁명운동에 포함시키는 경우[Katsiaficas(1999)가 대표적]가 있지만, 이 나라들에서 일어난 당시 운동들은 대부분 다른 이유들에 의해 촉발된 특수한 사회운동이었을 뿐 68혁명운동과 같은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반권위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4) 영국과 독일에서도 68혁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했지만 68혁명운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1974년 봄까지 노동투쟁의 물결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서독에서도 68혁명운동은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자발적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노동운동은 모두 물질적 생활조건의 개선이라는 전통적인 단협정책적 요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68혁명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68혁명운동의 주요 비판대상과 요구수준⁵⁾

68혁명운동이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운동에서 촉발되었음은 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저항이 대학교육 부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 대학생들의 베트남전쟁 반대시위와 미스아메리카 경연대회 반대운동이 있었으며, 독일 SDS(사회주의독일대학생동맹)는 명실공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사회주의적 권위주의에 도전하며 진정한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또한 이탈리아 68혁명운동은 5P, 즉 Padre(아버지), Prete(신부, 목사), Partito(정당), Padrone(주인, 사장), Professore(교수, 교사)를 상징적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프랑스 대학생들은 “선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투쟁은 계속된다!”⁶⁾라고 외치며 드골의 권위주의가 작동하는 프랑스의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했다. 또한 원자력 같은 각종 자본주의 기술에 대한 비판과 물질주의적 소비사회 및 경제위주의 가치관에 대한 반대도 1960년대 말에 수놓은 중대한 흐름이었다.

이와 같이 68혁명운동이 비판한 대상들은 대의 민주주의, 거대 기업, 자본주의 기술, 관료와 전문가에 의한 지배, 전쟁, 미디어에 의한 조종, 교수·교사 중심의 학교, 가부장적 가정 및 남성 중심 사회 같은 권위주의적 물질주의 가치와 질서였다. 계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스타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68혁명운동은 대중에 대한 관료적 권위주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권위주의, 자연에 대한 인간과 문명의 권위주의,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권위주의 등을 반대하고 일상에서 권위주의와 물질주의를 탈피한 해방된 삶을 요구했다.

5) 정병기(2007a: 제2장과 3장)를 참조하여 재구성.

6) 68혁명 당시의 구호에 대해서는 Katsiaticas(1999), Ali & Watkins(2001), Fraser(1999), Klaus(2003)를 참조.

1) 일상성의 민주주의와 반권위주의적 생산자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과 요구

68혁명운동의 의미는 생산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 요구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요구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⁷⁾ 이러한 요구의 정치·경제적 배경은 보편·평등 선거권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안전망이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었다.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이 68혁명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서구 주요 국가들은 안정된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 국가들은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당시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붙을 지핀 대표적인 나라들이었다.

미국 역시 유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일정하게 갖추어진 정치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같은 불평등이 첨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차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서구에 존재하는 외국인 문제와 여성차별이 안정된 정치·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내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차별의 정도와 성격이 서구의 그것과는 일정하게 다른 만큼, 노동운동의 잠재성 같은 미국 68혁명운동의 특수한 양상으로 연결되었다.

68혁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동구 국가들도 큰 범주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서구에 준하는 공업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자체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동독,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독 68혁명운동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적 의미에서 노동자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도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질서에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68혁명운동이 전통적 사회주의 운동을 고무하고 강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권위주의라는 새롭게 인식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등장

7)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및 일상성의 민주주의와 생산자 민주주의의 구분에 대해서는 손호철(2006: 71-5)을 참조.

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만의 현상이 아니라 현실사회주의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의 수립이라는 전통적 생산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한에서 주장될 수 있는 요구로 발전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 민주주의의 요구와 일상성의 민주주의의 요구는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8혁명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한 사람인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1988: 280 참조)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규정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가정의 모습에까지 이어졌다. 그에 따르면, 유년기에 가정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사람들이 파시즘에 쉽게 선동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68혁명운동 세대들이 가족 내의 권위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오제명 외, 2006: 135).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주의와도 관련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을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비판을 제기했던 당시의 여성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상성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비판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전문가 권위주의를 포함한 관료적 권위주의이다. 68혁명운동은 엘리트 양성 체제를 거부했다. 곧, 68혁명운동의 참여자들은 “추상적이고 한정된 교육을, 독백의 공범자가 되는 것을, 몇몇 사회계급에 한정된 유료 교육을, 학생이 거대한 비생산적 투자로 이해되는 것을, 학생·노동자·민중과의 접촉으로부터 배제되어 단절된 채로 있는 것”을 거부했으며, “학생이 노동자가 되어 생산체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을, 국민적인, 나아가 보편적인 대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교육이 무료화되는 것”을 요구했다(오제명 외, 2006: 157). 또한 그들은 “내가 참여하네, 네가 참여하네, 그가 참여하네, 우리가 참여하네, 너희가 참여하네, 이익은 그들이 챙기네”라고 비꼬며 반관료주의와 자주관리를 주장했다(오제명 외, 2006: 164-5).

관료적 권위주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에도 적용된다. 특히 스탈린 체제 아래에서 ‘개인의 해방이 전체 발전의 전제가 되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불식하고 ‘전체의 발전이 개인의 해방을 보장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당 관료

들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68혁명운동 참가자들에게 권위주의적 모순은 양 체제가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이었던 것이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문제는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 내의 사회운동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활동하는 좌파정당과 노동조합 등 진보세력들 내에도 관료적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서독에서 노조를 비판하는 평조합원들을 제명하고 프랑스로공산당계 노조인 CGT가 노학연대를 깨트리려 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병폐였다.

그밖에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핵무기와 환경파괴에 대한 반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과 장애인 문제 및 소수자 차별 등에 대한 비판은 적자생존의 논리를 신봉하는 진화론적 권위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68혁명운동의 이념은 반권위주의 운동을 실천덕목으로 하는 일상성의 민주주의 요구였다.

2) 탈물질주의의 사람사회를 위한 비판과 요구

68혁명운동 세대들이 제기한, 권위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일상성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물질주의적 소비사회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1968년을 전후한 시대는 “억압에 의해 관리되었던 초기 자본주의와는 달리 조작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김누리, 2001: 276)였으며 그것이 바로 거대한 물질주의적 소비사회였던 것이다. 이제 대중들을 관리하는 것은 거대한 조작체계이며 이를 통해 후기자본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사회·교육·문화의 영역뿐 아니라 개인 내면의 욕망 구조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물질주의 소비사회의 문제는 이제 경제적 ‘착취’라기보다 일상적 ‘소외’의 문제였다(Touraine, 1966: 14-26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68혁명운동 세대의 저항은 기성세대가 역사의 진보라고 믿어왔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의 표현이자, 부의 증대를 통해 인간 해방을 이루려고 했던 실천 방법에 대한 부정이었다(강미화, 1998: 66). 68혁명운동 세대는 소비사회와 관리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

기를 원했다. 그것은 수동적 소비와 진부한 일상적 삶에 대한 거부였으며, 이때 그들의 욕체와 욕망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거부의 코드로 인식되었다. 록 음악, 대마초, 육체적 노출과 거친 몸짓 등은 바로 이러한 거부의 코드를 표출하는 행위였다. 당시 그들의 구호는, “행동하라!”, “일하지 마라!”, “더 많이 소비하시오, 더 빨리 죽을 것이니!”, “열정을 해방하라!”, “나는 내 욕망의 현실성을 믿기 때문에 내 욕망을 현실이라 여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혁명한다. 더 많이 혁명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 “우리는 굶어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계일지라도 권태로움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계와는 바꾸고 싶지 않다!” 등이었다(오제명 외, 2006: 167).

물론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사고⁸⁾는 전후(戰後)복구와 사회복지국가라는 물질적 풍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풍요는 1920-1930년대의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공황을 케인스주의적으로 해결한 전례에 따라 전후복구라는 절대명제를 위해 다시금 케인스주의적 동의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 그에 따라 정당정치적으로는 영국의 버츠켈리즘(Butskelism)⁹⁾과 독일의 대연정 및 미국의 양당 합의 같이 좌우세력 간 시민주의적 합의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는 거대노조와 기업의 합위가 성립되어 소비재 생산에 박차가 가해졌다(Harman, 2004: 17-8). 곧 총수요조절이라는 케인스주의의 재등장에 따라 소비사회가 촉진된 것이었다.

1930년대 말이나 1940년대 초에 태어나 풍요로운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68혁명운동 세대는 이러한 조건에서 대안적 사고가 동결되고 봉쇄된 듯이 보이는 사회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물질적 풍요는 새로운 사고가 형성되는 경제적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소비사회적 명예를 쫓는 질곡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끊임없는 축적을 추구하는 우파든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좌파든, 모두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고를 가지고 물질적 가치의 소비에

8) ‘탈물질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Inglehart(1971; 1977)를 참조.

9) 버츠켈리즘은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 게이츠크(H. Gaitskell)과 뒤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버틀러(R. A. B. Butler)의 경제정책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만든 표현으로서, 1950-1960년대 영국의 합의정치(consensus politics)를 대표하는 말이다(강원택·정병기, 2006: 28).

종속되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경제 발전이 대중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술 진보가 진행될수록 전쟁은 더욱 확대되고 (Marcuse, 1980),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에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Habermas, 1997)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 외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의 사람사회의 요건이었다.

68혁명운동에 이념적 근거를 제공한 다른 한 학자인 마르쿠제는 ‘억압이 없는 현실’이라는 원칙이 가능한 유토피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불필요한 억압에 대한 항의”이자 “두려움 없는 최고 형태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위대한 거부’를 부르짖었다(Marcuse, 1970: 151). 68혁명운동 세대들의 탈물질주의적 범주는 노동자들의 혁명 주체성 탈각과 경제결정론의 폐기 및 억압적 사회구조의 전복이었다. 곧, 그들은 물질주의적 소비사회의 멍에도 사라지고 일상적 권위주의의 질곡도 사라진 사회를 요구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세대들의 요구는 “상상력에 권력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괴의 열정은 창조적인 회열이다!”, “서른이 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우리들 속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는 한 폐허는 남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가증스럽게도 그 본래의 모습인 파시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을 쟁취하자!”(오제명 외, 2006: 154)와 같이 무제약적이고도 비타협적이었다.

3. 68혁명운동을 전후한 노동운동의 전개

1968년을 전후한 선진 산업국가들의 혁명 물결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를 넘어 동독과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범람했으며 영국과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 일어난 혁명운동의 현상과 성격은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노동운동과의 관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68혁명운동의 상징적인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혁명운동에 노동자들이 연대하면서 운동의 열기가 고조된 반면, 서독과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년·학생들의 운동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운동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68혁명운동은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번져갔으며, 동구권에서는 자주관리의 형태로 인간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68혁명운동을 1968년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해를 전후한 시기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러한 차이점은 적지 않게 사라진다. 서독과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1970년대 초반의 자발적 파업과 1969년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의 노동자투쟁으로 연결되었다.¹⁰⁾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흑인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사회주의적 경향들까지 다시 강화되었다. 영국에서도 비틀즈 음악 같은 문화적 저항운동뿐 아니라 런던경제대학 학생들의 시위와 여성노동운동¹¹⁾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대학생들의 운동도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하지만 영국의 척박한 좌파지형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였다. 동구권에서도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동독과 헝가리 등에서 스탈린적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인간적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요구가 있었다.

1) 프랑스의 노학연대와 자주관리

68혁명운동 당시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노학연대와 자주관리운동으로 대표된다. ‘68혁명’의 명칭이 생겨난 상징적 사건인, 1968년 5월 10-11일 파리 라탱지구(Quartier Latin)의 ‘바리케이드의 밤’이 지난 지 불과 이틀 후(13일)에 프랑스

10) 이러한 의미에서 1968년을 “혁명적 승리의 해”가 아니라 “오랜 반혁명적 침체기를 여는 혁명의 종말이 시작되는 해”라고 본 대니얼스(Daniels, 1996: 3)의 판단은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1968년 6월 20일 영국 다게넘(Dagenham)의 포드자동차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성임금차별에 항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으며, 영국 여성운동의 중요한 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Ali & Watkins, 2001: 197-9).

노동자들은 이미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또한 5월과 6월 사이에는 노동자, 농민 및 학생의 자율적 조합을 대표하는 ‘중앙파업위원회’가 6일 동안 시청을 점수하고 독자적 통화까지 발행했던 낭트(Nantes)에서처럼 몇몇 도시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했다(Katsiaficas, 1999: 213).

이러한 노학연대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노동자들에게 개방된 대학을 요구하고 노동자들도 학생들의 새로운 사고에 눈을 돌림으로써 가능했다.¹²⁾ 이로써 적어도 이 연대 학생들과 파업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계급이 체제에 매수됐다고 여겼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물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소비사회가 바로 적이라고” 본 일부 학생들의 호소가 “자동차·세탁기·냉장고·TV를 구입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호응을 얻을 수 없었다”(Harman, 2004: 155-6)는 하만의 염려는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운동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지식을 사회화하는 것을 포함한 자주관리 요구가 활성화된 것이었다. 서독과 영국에 비해 산업의 현대화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프랑스도 1960년대에는 이미 생산에서의 과학적 혁신이 진전되면서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할 기술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전문 지식은 점점 더 자본주의적 지배와 권위주의적 지배의 수단이 되어갔다. 1968년의 자주관리 요구는 이와 같은 전문화된 지식의 사회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실제로 어떤 공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영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했는데,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 규칙적으로 가스와 전기를 공급한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Katsiaficas, 1999: 245).

또한 ‘노동자·학생 행동위원회 총회’는 외국인의 차별적 지위 철폐를 투쟁 목표로 설정했고, ‘국경 철폐를 위한 행동위원회’가 결성되어 명실공히 국제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Katsiaficas, 1999: 242-3). 프랑스의 노학연대는 노동자 국제주의로 발전하면서 국제적 계급투쟁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만의 염려는 오히려 기성노조의 관료적 권위주의의 문제였다. 이것은 상

12) 시먼(Seeman, 1972: 385-402)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들의 사회적 소외 의식이 미국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러한 심리적 배경으로 인해 특히 프랑스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대적으로 혁신적이며 노동자적 기반이 탄탄한 공산당계 노조인 CGT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학연대와 지주관리운동에 위협을 느낀 퐁피두(G. Pompidou) 총리는 노동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3자 협상을 제안했고 CGT와 사회당계 노조 CFDT를 비롯한 5대 노조가 모두 이에 응했다. 일주일 동안 파리의 그르넬(Grenelle) 가에서 진행된 이 협상(그르넬 협약, 5월 27일 최종 합의)은 매우 엄청난 물질적 보장을 약속하며 타협을 성사시켰다(Singer, 2002: 182; Seidman, 2004: 194-5). 곧, 그르넬 협약에 따라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약 35%이상 인상(농업 부문은 56%, 몇몇 산업 부문은 72% 인상), 주당 노동시간과 연금수령 연령의 하향 조정, 가족 수당과 노령 수당의 인상, 노동조합 권리의 신장을 보장받았다. 파업 참가자들도 점거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약속은 노동자들을 매수하여 전통적인 타협적 노사관계에 묶어두려는 정부와, 노학연대의 끈을 끊고 노조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기성노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역시나 “놀랍게도” 파업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협상 결과를 거부했다(Katsiaticas, 1999: 215-6). 파업노동자들은 협상이 진행되던 5월 23-24일 밤에 이미 에콜 가(rue des Ecoles)에 지난 ‘바리케이드의 밤’에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바리케이드를 치고 개량주의적 타협에 반대했다(Seidman, 2004: 182). 결국, 프랑스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CGT의 지도부 조르주 세기(G. Séguy)와 베노아 프라송(B. Frachon)이 타결된 협약안을 발표하려고 불로뉴 비앙쿠르(Bulogne-Billancourt)의 르노 공장에 갔을 때, 점거농성 중이던 노동자 2만 5,000명이 그들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으며, 전국적으로 협약안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CGT는 파업노동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CGT는 대중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고자 5월 29일에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고, 그 결과 약 5만 명이 참여하게 되었다(Feenberg & Freedman, 2001: 60). 사회당계 노조인 CFDT도 이에 동조하여 적어도 외면적으로 1968년의 혁명운동은 노동운동 속에 뿌리내린 듯이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되어 드골의 사임거부¹³⁾와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고 급

13) 5월 29일의 대규모 시위 직전에 드골은 사임을 염두에 두고 엘리제 궁을 떠나 잠적했다(Feenberg & Freedman, 2001: 60).

기야 6월 말의 총선 정국 속에 휩쓸리고 말았다.

결국 프랑스 5월의 새로운 계급투쟁은 새로운 요구의 발전과 기성노조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긴장과 기성노조의 권위에 다시 흡수되었다. 사용자들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강력한 현장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방해하고 어용노조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Harman, 2004: 160). 더욱이 1970년대의 국제적 경제위기와 유럽 내의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투쟁은 물질주의적 요구에 이끌려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의 요구는 한동안 잠재되었다. 새로운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여 경제적 가치 위에 결합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확대된 1980년대 말 SUD(Solidaire, Unitaire, Démocratique)와 ‘그룹 10(Groupe de 10)’의 형성을 통해서였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의 사고와 물질주의적 계급투쟁이 분리되고 적어도 노동조합운동 속에서는 전자가 후자 안에 잠복되었다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의 발전과 억압을 통해 양자가 결합되어 새로운 조직으로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이탈리아의 자발적 대중파업과 구조개혁 요구

이탈리아의 68혁명운동 당시 노동운동은 프랑스의 광범한 노학연대와 달리 내부의 토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발성은 기성노조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조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설립된 CUB(Comitati Unitari di Base, 토대통합위원회)의 노조 활동 재고와 노동운동 전략 변화 요구였다(김중법, 2004: 79). CUB는 1968년 중순경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밀라노(Milano)와 마르게라(Marghera) 항구 등의 대도시에서 먼저 조직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이 운동이 68혁명운동이 끝나면서 사라져갔지만, 이 운동의 이념과 비판은 공장평의회 조직으로 수용되어 기성노조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탈리아 68혁명운동이 노동운동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공장평의회 운동으로 연결된 1969년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이었던 것이다.¹⁴⁾

‘뜨거운 가을’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들은 15-17%의 일괄 임금인상,

주 5일 40시간제 실시, 산업재해 및 병가 관련 요구, 생산직과 사무직의 평등한 대우, 종업원총회 소집권과 ‘기업노조대표’ 인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Albers, 2000: 162). 이러한 경제적 요구들 중에서 68혁명운동의 이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종업원총회 소집권과 기업노조대표 인정이라는 공장평의회 운동이었다. ‘뜨거운 가을’의 자발적 파업투쟁으로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위 요구들을 단협정책적으로 성사시켜 ‘노조기업대표(RSA: Rappresentanza Sindacale Azienda)’가 인정되었다. RSA는 세 정파노조(공산당계 CGIL, 가톨릭계 CISL, 공화·사민계 UIL)의 통합조직으로서 300 내지 500명당 1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Albers, 2000: 169).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토대조직을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공장평의회(Consiglio di fabbrica)’로 성립되었고, 공장평의회는 현장 노사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2년 제조업 부문에 6,000개 가량의 공장평의회가 활동했고, 건설노동자와 농업노동자 및 서비스업종까지 포함할 때 그 수는 총 1만 8,000개 기업에서 9만 1,100개로 각각 늘어났다(Albers, 2000: 170).

더욱이 현장 노동자들과 공장평의회들의 요구는 이제 기성노조의 정파적 분열을 노동자 일반의 통일적 투쟁요구로 발전해 갔다. 자발적 파업 초기에 기성노조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공장평의회 운동이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이 조직들을 흡수함과 동시에 노조통일운동에도 공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 가을에 CGIL, CISL, UIL은 첫 회담을 열어 노조 통일을 구체화해갔다.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금속노조와 화학노조를 중심으로 통일회담을 열어 1971년 말까지 통일노조 전국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들의 통일노조 구상은 세 노조기구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새로운 토대조직을 뿌렸한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임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표현했다.

14) 길허-홀타이(Gilcher-Holtey, 2003: 167)는 1969년 ‘뜨거운 가을’을 전후해 68혁명 운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공장활동으로 흡수되어간 점도 1970년대 이탈리아 노동운동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들은 노동운동 내에서 ‘정치투사’로 불렸다.

그러나 1972년 상반기 이후 노조통일에 대한 반대 기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탈리아 정파노조들의 정당정치적 의존성이었다. 결국 지지기반의 상실을 염려한 각 정당(특히 공산당, 사회당, 기민당)들이 노조의 통일을 방해했고 노조지도부는 이러한 정치 공작에 동조했다. 그 결과 1972년 5월 말에 이미 진행 중이던 CISL 해산대회가 중지되는 등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노조들은 통일운동의 완전한 실패를 막으려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 심각한 수정을 가하는 수준에서 중도적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결실이 1972년 7월 초에 합의된 ‘CGIL-CISL-UIL 연맹 협정’이었고, 이 협정에 따라 결성된 것이 ‘통합연맹(Federazione unitaria)’이었다(정병기, 2003: 277-9; 2007b: 164-6). 이 연맹체는 ‘제도화된 행동통일’ 기구로서 현재까지 이탈리아 노조들의 단협정책, 개혁정책, 경제·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협의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 노조통일운동은 비록 단일한 계급투쟁조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1968년 이래 발전된 계급투쟁의 성과이자 지속적 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8혁명운동으로 촉발된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발전은 또한 구조개혁 요구에서도 나타났다(Albers, 2000: 163). 특히 ‘뜨거운 가을’ 기간에 이탈리아 노조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택·토지 개혁(집세 동결과 과잉집세 인하, 국민주택 건설 증대를 위한 포괄적 조치, 농경제상 가치가 큰 도시번화지역 토지와 대지의 몰수), 보건시설 개혁(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도 전반적 보건 복지시설과 의약 연구시설을 포괄하는 국립보건시설 건설, 제약산업 국유화)과 철저한 조세 개혁(소득세 인상, 고소득자와 대자산가에 대한 강력한 통제, 기본생활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탈세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용자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지향했다.

결국 당시 콜롬보(Colombo) 정부는 1970년에 소비세 인상을 통해 독점자본에 유리한 재분배 조치를 취한다거나 개혁의 부담을 임금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주택 및 보건 개혁에 관해 직접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1971년 초 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이루어졌고, 협상 결과는 대체로 노조의 요구들에 적합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한 주택 및 토지

개혁에 관한 실행 법안들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거쳐서야 간신히 통과될 수 있었으며, 보건 개혁 법안은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게다가 1972년에 등장한 중도 우파 정부는 노조를 구조 개혁을 위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와 같이 1969년 ‘뜨거운 가을’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비록 결과의 확보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발적 대중파업을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 구조 개혁 요구들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탈리아 68혁명운동이 노동운동에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은 자율주의와 같은 새로운 노동운동과 비판적 노동운동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1969년 ‘지속 투쟁’이라는 의미의 ‘로타 콘티누아(Lotta Continua)’ 조직이 형성되어 토리노(Torino)의 미라피오리 피아트(Mirafiori-Fiat) 공장 투쟁을 주도했다. 또한 이때 다른 한 부류는 자율주의 그룹을 형성하여 학생·실업자·히피를 포함하는 ‘사회적 노동자’에 눈을 돌릴 것을 주장했다(Harman, 2004: 286).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프랑스처럼 광범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에서도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었다. 또한 공산당계 노조 내에 형성된 노조근본주의 그룹인 ‘에세레 신다카토(Essere Sindacato)’와 같은 비판적 노조운동의 형성도 68혁명운동의 소산이었다. ‘에세레 신다카토’는 이탈리아 노조통일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기성노조 권위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장성과 노동자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중요한 비판적 노동운동조직으로서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68혁명운동과 대중파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노동운동도 기성노조의 반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권위주의적 성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고, 그에 따라 비판적 노조의 끊임없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68혁명운동의 영향과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망

68혁명운동이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의 좌우 구도에 탈물질주의라는 새로운 갈등축을 형성한 것이다.¹⁵⁾ 기존의 좌우구도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노자계급모순에 기초함으로써 경제적 분배와 성장을 두고 다투는 갈등

<그림> 68혁명운동 이후 새로운 갈등구조



* 자료: 정병기(2007a: 502)의 그림을 제작함.

구조라면, 68혁명운동 이후의 새로운 구도는 인간의 일상에 주목하는 반권위주의적인 탈물질주의와 권위적인 물질주의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당시 젊은이들이 주목한 것은 경제적 가치 위주의 물질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이 사고를 넘어서는 일상성의 민주주의 사고, 즉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간과 문명의 권위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강대국의 권위주의 및 진화론적 권위주의라는 제반 권위주의적 현상을 비판하는 탈물질주의적 사고였다. 이 권위주의는 각각 가부장적 모순, 환경모순, 관료적 모순, 제국주의적 모순(혹은 전쟁모순), 진화론적 모순이라는 인간적 모순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노자모순이 자본주의적 계급사회에 고유한 사회적 모순이라면, 탈물질주의 세대가 주목하는 모순은 인간이라는 영장류의 사회에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유(類)적 모순이다.

이와 같은 두 축에 따라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네 가지의 사고체계 및 사회세력이 형성되었다(<그림>과 <표> 참조). 기존의 좌파진영은 전통적 좌파(물질주의적 좌파)와 새로운 좌파(탈물질주의적 좌파)로 분리되고, 우파진영은 전통적 우파(물질주의적 우파)와 새로운 우파(탈물질주의적 우파)로 나뉘게 된 것이다.

15) 68혁명운동 이후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사고체계(도표 포함)에 대해서는 정병기(2007a)의 글 제4장 1절을 일부 재구성한 것이다.

<표> 68혁명운동 이후 새로운 갈등구도와 사고체계

유(類)적 모순		사회적 모순	
		사회경제주의	시장경제주의
권위주의 모순	탈물질주의	① 새로운 좌파 (탈물질주의 좌파)	③ 새로운 우파 (탈물질주의 우파)
	물질주의	② 전통적 좌파 (물질주의 좌파)	④ 전통적 우파 (물질주의 우파)

* 자본주의 사회적 모순: 노자계급모순

* 유적 모순으로서 권위주의 모순: 가부장적 모순, 환경 모순, 관료적 모순, 제국주의적 모순(전쟁 모순), 진화론적 모순

* 자료: 정병기(2007a: 503)를 재구성.

물질주의 우파(④)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자유시장경제를 선호하는 전통적 보수주의 진영이나 반동적 세력에 해당하고, 탈물질주의 우파(③)는 시민운동이나 신사회운동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자유시장경제를 고수하는 합리적 보수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주의 좌파(②)는 경제적 분배와 권위주의적 계급운동에 모든 사회문제를 환원시키는 전통적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구좌파세력이라고 한다면, 탈물질주의 좌파(①)는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을 인식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유적 모순도 해결하고자 하는 68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은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좌파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곧, 68혁명운동은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일상성의 민주주의 가치에도 주목하게 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민주적 발전과 새로운 사회운동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68혁명운동 당시나 머지 않은 시기에 바로 현실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노동운동에서 보았듯이 구조개혁운동에서 물질적 가치를 확대·발전시켰고, 자주관리와 평화회운동 및 자발적 과업에서 노조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비판했으며, 외국인 차별 철폐 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파급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68혁명운동의 반권위주의적 영향을 수용한 흔적이 뚜렷하다. 그렇지만 관료적 권위주의를 제외한다면 유적 모순들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었다. 당시 대부분의 노동운동

은 권위주의적 행태 및 사고를 극복한 반권위주의적 생산자 민주주의와 탈물질주의적 사람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세력들과 충돌했던 것이다. 탈물질주의적인 새로운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적 좌파들의 비판적 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기까지 했다. 프랑스의 노학연대가 새로운 대항세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5월투쟁 이후 사그라진 것도 결국 이러한 성격을 방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68혁명운동이 노동운동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새로운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탈물질주의 좌파에 해당하는 비판적 노동운동 그룹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68혁명운동의 배경이 된 1960년대의 질서가 대량 생산과 사민주의 정치에 의해 이룩된 물질적 풍요를 복지국가를 통해 상대적이거나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사회였다면, 1980년대 이후 21세기에 이르는 질서는 새로운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정치에 의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탈물질주의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1960년대 말과 달리 1980년대 이후는 다시금 물질주의의 가치가 회복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운동의 전망은 계급환원론적인 전통적 사회주의도 아니며 계급모순을 도외시한 탈물질주의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기의 자본과 시장경제주의는 68혁명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탈물질주의 사고를 물질주의적 지배관계에 이용하는 경향을 확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계급모순을 도외시하는 탈물질주의는 오히려 자본과 시장경제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과 사적 소유의 폐지가 권위주의적 물질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급환원론적인 주장도, 더욱 절박해지고 대량화되어 가는 물질주의적 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기의 새로운 노동운동은 위 도표 상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탈물질주의 좌파’로 거듭나야만 할 것이다.

(2008년 4월 14일 투고, 4월 30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강미화. 1998. 『독일 68운동의 의미와 유산』. 《경제와 사회》 통권 제37호.
- 강원택·정병기. 2006.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여성개발원.
- 김누리. 2001. 『68혁명과 현대독일문학: 70년대 문학의 경향전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어교육》 제21집.
- 김종범. 2004.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이해』.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손호철. 200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서울: 이매진.
- 오제명·김경석·김길웅·김지혜·안영현·이은미·이정희·전경화. 2006.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 길.
- 정병기. 2003. 『이탈리아 노동조합체계』. 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서울: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 2007a.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과 반혁명: 68혁명운동의 의미와 교훈』.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제3회 맑스큐무날래 발표논문집. 서울: 문화과학사.
- _____. 2007b. 『이탈리아』. 민주노총 산별노조특위(편).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Albers, D. 2000. 『통일노조의 재건, 분열과 정파노조의 통일운동(1944-1972)』. 정병기(편저).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서울: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Ali, T. & S. Watkins. 2001.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안창수·강정석 옮김. 서울: 삼인.
- Daniels, R. V. 1996. *Year of the Heroic Guerrilla: World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1968*. Cambridge, Mas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Feenberg, A. & J. Freedman. 2001. *When Poetry Ruled the Streets: The French May Events of 1968*. with a foreword by Douglas Kellner.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raser, R. 1999. 『1968년의 목소리』. 안효상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 Gehrke, B. & G-R. Horn. 2006. *1968 und die Arbeiter. Studien zum "proletarischen Mai" in Europa*. Hamburg: VSA.
- Gilcher-Holtey, I. 2003. 『68운동: 독일·서유럽·미국』. 정대성 옮김. 파주: 들녘.
- Habermas, J. 1997.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 II*. 4th ed. Frankfurt a. M.: Suhrkamp.
- Harman, C. 2004. 『세계를 뒤흔든 1968』. 이수현 옮김. 서울: 책갈피.
- Horkheimer, M. 1988. *Gesammelte Schriften, Bd. 12*.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 Verlag.
- 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5.
- _____.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tsiaficas, G. 1999. 『신좌파의 상상력: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이재원·이종태 옮김. 서울: 이후.
- Klaus, W. 2003. "Flugblatt und Flugschrift in der Studentenbewegung der sechziger Jahre." Werner Faulstich(Hg.). *Die Kultur der 60er Jahre*. München: Wilhelm Fink.
- Marcuse, H. 1970. *Triebstruktur und Gesellschaft. Ein philosophischer Beitrag zu Sigmund Freud*, 40. Tsd.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1980. *Der eindimensionale Mensch*. 14. Aufl. Darmstadt, et al.: Luchterhand.
- Patrick, S. & M. McConville. 1968. *Red Flag, Black Flag*. New York: Ballantine Books.
- Seeman, M. 1972. "The Signals of '68: Alienation in Pre-Crisis Fr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7, no.4.
- Seidman, M. 2004. *The Imaginary Revolution: Parisian Students and Workers in 1968: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al History*.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Singer, D. 2002. *Prelude to Revolution: France in May 1968*. 2nd ed. Cambridge, Mass.: South End Press.
- Touraine, A. 1966. *La Conscience Ouvrière*. Paris: Editions de Seuil.

The Forms and Means of French Student Struggles in 1968

Son ho-jong

THIS article focuses on French May Revolution in 1968. The forms and means of french student struggles entirely broke off the political practices of old-left. Obviously violence, occupation and autonomous organizations were the expression of this rupture. The intensive street fighting(violence) was not only the mean of self-defense but also the moments of exposure of repressive structures, after this, functioned as a base of occupation movements. Occupation movements had destructed the authoritarian and oppressive command-system and experimented autonomous self-management (reappropriation of space) by occupiers. In addition to this struggles, action committees(autonomous organization) had showed up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ary actions without the representation and vanguard.

Key words: violence, occupation, direct democracy, autonomous organization, spontaneity, autonomy, action committee.

Revolutionary Movement of 1968 and Labor Movement: Lessons of Antiauthoritarian Postmaterialism and Perspective of Labor Movement

Jung byung-kee

The revolutionary movement of 1968 has not payed attention only to socialism. But it has attention also to the post-materialistic thinking that criticizes such authoritarian phenomena as patriarchal, human and civilizational, bureaucratic, imperial and evolutionary authoritarianism. Socialism and postmaterialism had nevertheless could be combined in the revolutionary time

of 1968 and even in a short time. The existing trade unions were driven to comply with the basis democratic demands of the rank and file, but could not develop it into real democracy. Neither were the demands of the rank and file the complete postmaterialistic reflection getting over the antibureaucratism. But since 1980s the neoliberalism has expanded and therefore the material virtue has been recovered. The significance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of 1968 in the historical light of the labor movement lies in the point: it has provided the moment at which both class contradiction and authoritarian materialistic contradiction can be concurrently dissolved.

Key words: 1968, postmaterialism, anti-authoritarianism, democracy of daily life, labor movement.

**68 revolution and autonomia movement
: focusing on the squatting movement in Italy**

Yoon soo-jong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68 revolution and thereafter squatting movement in Italy,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s. In Italy there was the workerism before the 68 revolution, which emphasized the independence of working class. At the 68 revolution, students occupied universities and struggled for anti-authoritarianism and autonomy. With the expansion of workers' struggle at 1969, workers movement came to be allied with students movement.

With this alliance, struggle(movement) had been diffused from factory to society. In factory, internal parades and occupying struggles appeared, trade union struggles went beyond factory to combine other social struggles. Squatting movements such as housing occupation, rent strike, auto-reduction movement, free radio movement, health center movement, movement for prisoners had the aim to satisfy people's immediate needs.

Since the second half of 1970s, social center movement and women center